

2015 / 06 / 26 (FRI)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혼조세. 그리스 채무협상 우려 재부각된 가운데 정부의 추경편성 발표되며 혼조 마감. 대형 IT주들은 대부분 약세였고 부품주가 일제히 상승.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다음카카오, 리노공업, SK C&C, 엔씨소프트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위메이드,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약세.

종목별로는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합병이 진행될 것이라는 평가에 SK C&C가 3.2% 상승 마감.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202 억	SK하이닉스	-258 억
삼성전자	57 억	LG전자	-125 억
LG디스플레이	36 억	삼성에스디에	-114 억
LG이노텍	31 억	엔씨소프트	-102 억
인피니트헬스	30 억	파트론	-38 억
SK C&C	25 억	컴투스	-31 억
삼성전기	22 억	NHN엔터	-17 억
이오테크닉스	21 억	아모텍	-16 억
선데이토즈	20 억	STS반도체	-14 억
삼성테크윈	15 억	파루	-12 억
LS	15 억	OCT머티리얼	-11 억
안랩	12 억	다음카카오	-10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다음카카오	393 억	삼성전자	-480 억
엔씨소프트	139 억	LG전자	-101 억
컴투스	35 억	삼성SDI	-65 억
SK C&C	30 억	LG디스플레이	-58 억
조이시티	20 억	삼성테크윈	-58 억
리노공업	17 억	SK하이닉스	-53 억
OCT머티리얼	17 억	NAVER	-35 억
LG이노텍	16 억	위메이드	-32 억
아모텍	10 억	이오테크닉스	-25 억
선데이토즈	9 억	한국사이버결	-17 억
심텍	9 억	윌익IPS	-13 억
젬백스테크놀	9 억	삼성전기	-12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836.79	-0.1%	-10.0%
DDR3 2Gb (Spot)	1.54 \$	0.0%	-30.3%
NAND 64Gb (Spot)	2.63 \$	-0.4%	8.7%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3 \$	-3.5%	-11.7%
LCD TV 50" Open Cell	199 \$	-0.5%	-1.0%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97.55	-0.6%	-6.4%	-131 억	-361 억
KRX Semicon	1,930.91	-0.3%	2.9%	-222 억	-540 억
(코) 반도체	1,020.29	0.5%	28.0%	-26 억	-24 억
(코) IT H/W	423.62	0.4%	21.5%	-91 억	-20 억
(코) IT S/W	2,309.25	1.7%	15.5%	41 억	411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69,000	-2.5%	-4.4%	57 억	-480 억
LG전자	49,900	-1.8%	-15.6%	-125 억	-101 억
삼성SDI	116,500	-2.5%	0.4%	-10 억	-65 억
삼성테크윈	30,050	-3.5%	26.0%	15 억	-58 억
서울반도체	16,950	1.5%	-16.1%	-5 억	2 억
신도리코	67,000	0.6%	-1.2%	1 억	-1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3,100	-0.6%	-9.7%	-258 억	-53 억
이오테크닉스	94,000	0.1%	-25.0%	21 억	-25 억
윌익IPS	15,050	-0.7%	7.9%	-4 억	-13 억
리노공업	51,900	3.8%	35.5%	-3 억	17 억
유진테크	18,000	1.1%	11.5%	1 억	0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6,500	-0.8%	-12.6%	-114 억	6 억
SK C&C	277,500	3.2%	30.0%	25 억	30 억
포스코 ICT	5,280	0.4%	-0.4%	1 억	0 억
다우기술	20,900	0.0%	74.9%	3 억	2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53,000	0.6%	-8.3%	202 억	-35 억
다음카카오	119,800	4.8%	-3.1%	-10 억	393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5,000	-1.8%	-25.7%	36 억	-58 억
에스에프에이	47,150	-2.0%	-5.0%	-2 억	-6 억
솔브레인	48,500	-1.6%	50.9%	1 억	3 억
덕산하이메탈	9,640	19.2%	-13.5%	-2 억	-1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4,300	0.7%	-0.7%	22 억	-12 억
LG이노텍	109,500	1.9%	-2.7%	31 억	16 억
파트론	8,730	1.0%	-25.7%	-38 억	2 억
루멘스	4,860	1.1%	-31.1%	1 억	-3 억
일진디스플레이	9,510	1.0%	39.4%	-4 억	5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04,000	2.5%	12.1%	-102 억	139 억
컴투스	134,000	0.6%	-1.7%	-31 억	35 억
NHN엔터테인먼트	57,100	-1.6%	-34.7%	-17 억	2 억
게임빌	90,500	-0.9%	-25.0%	4 억	-10 억
위메이드	37,450	-2.7%	-0.9%	3 억	-32 억
선데이토즈	17,350	0.0%	0.9%	20 억	9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29,400	-1.6%	412.5%	-3 억	1 억
한글과컴퓨터	18,250	0.8%	-9.7%	-7 억	7 억
코나아이	31,850	0.8%	-5.5%	-4 억	0 억
슈프리카	23,650	3.5%	-7.1%	6 억	-2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3.30	-0.3%	4.3%
MSCI Internet	164.77	-0.4%	7.9%
MSCI Software	169.47	0.1%	3.6%
MSCI Semicon	222.43	0.4%	1.0%
MSCI IT Services	124.84	-0.2%	6.0%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57.95	-0.1%	5.1%
Facebook	87.98	-1.0%	12.8%
Tencent	162.00	-1.0%	44.0%
Baidu	207.55	-1.3%	-9.0%
Yahoo	41.06	0.3%	-18.7%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5.65	0.0%	-1.7%
Oracle	41.06	-0.3%	-8.7%
SAP	73.50	0.0%	5.5%
EMC	27.04	-1.5%	-9.1%
Symantec	24.16	-0.3%	-5.8%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7.50	-0.5%	15.5%
Nokia	7.24	0.1%	-7.9%
Lenovo	10.94	-3.4%	7.3%
ZTE	20.90	-1.9%	24.1%
HTC	75.7	0.9%	-46.7%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99	0.3%	-11.8%
Qualcomm	65.26	-0.1%	-12.2%
Texas Instruments	53.80	-0.4%	0.6%
Micron	24.02	-0.2%	-31.4%
Toshiba	430	-0.1%	-16.2%
Renesas	939	-4.1%	14.1%
STMicro	8.44	2.4%	13.0%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6.08	-0.5%	3.5%
HP	31.21	-1.0%	-22.2%
Accenture	99.48	1.7%	11.4%
Fujitsu	729	-0.2%	13.1%
NTT Data	5,440	0.6%	20.5%
CSC	66.35	-0.5%	5.2%

Hardware

close	1D	YTD	
GE	27.04	-0.8%	7.0%
Panasonic	1,774	-0.2%	24.3%
SONY	3,880	1.6%	56.9%
Whirlpool	178.27	-2.4%	-8.0%
Electrolux	263.40	-1.8%	15.1%
Haier	21.25	-1.2%	15.1%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1,740	-0.4%	64.1%
KYOCERA	6,647	-0.8%	19.6%
Nidec	9,145	-1.6%	16.5%
TDK	9,760	-4.5%	36.3%
Ibiden	2,142	-0.6%	19.8%

Display

close	1D	YTD	
Sharp	160	-1.2%	-40.3%
Japan Display	500	-1.0%	35.1%
AUO	4.48	0.2%	-12.0%
Innolux	16.00	2.6%	3.9%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다음카카오	4.8%	실적전망

News & Issue

다음카카오, '카카오채널' 등에 의한 실적개선 전망에 강세

다음카카오가 '카카오채널'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에 강세. 다음카카오는 카카오채널을 도입하며 카카오 TV와 카카오토리, 플레인 등의 콘텐츠를 휴대폰 메시지 카카오톡 안에 포함하는 형태로 구현.

이번 카카오채널 도입으로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광고 측면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함. 또한 하반기에 신규 서비스를 연이어 도입할 예정이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됨. 최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채널로 타깃광고를 집행할 경우 모바일 광고 시장 내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며 카카오톡의 일부 유료화와 카카오톡의 본격 출시 등도 예정된 상태.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할 전망. 단기적인 이익은 다소 예상을 밑돌 수 있지만 카카오 채널과 각종 서비스 출시로 4분기부터 개선 효과가 본격 반영될 전망. 이로써 차기 수익모델이 없다는 부정적 요인이 해소됐다고 평가됨.

IT서비스 IT Service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SK C&C	3.2%	최근이슈

News & Issue

국민연금의 SK-SK C&C 합병반대, 걸림돌 안될 것

국민연금이 SK와 SK C&C의 합병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두 회사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 국민연금의 SK C&C와 SK 합병 반대 의결권 행사에 대해 다수 의결권 자문기구(ISS와 기업지배구조원)의 찬성을 감안하면 합병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아울러 합병 무산에 대한 우려가 SK C&C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전날 SK 지분 7.19%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SK와 SK C&C의 합병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합병비율과 자사주소각시점이 SK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힘.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는 합병으로 SK그룹의 이종 지배구조가 단순화돼 대주주, 경영진, 이사회 및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잘 부합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 기업지배구조원 역시 찬성하고 있어 국내 및 해외 기관이 보유한 SK 지분 14.4%와 SK C&C 지분 6.9%는 합병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됨."

자사주 소각 후 SK C&C의 최대주주 보유지분 46.2%, SK C&C가 보유하고 있는 SK의 지분 38.2%까지 고려하면 양사 모두 합병하는 안으로 주주총회가 마무리될 전망. 임시 주총 후 절차상 남은 이슈는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지만, 이 역시 합병에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SK와 SK C&C는 매수청구 대금가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경우 이사회 결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됨.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엔씨소프트	2.5%	실적전망

News & Issue

엔씨소프트, 2분기 실적 상향조정에 강세

엔씨소프트의 2분기 "드래곤의보물상자" 이벤트에 이어 반지, 귀걸이 이벤트가 재개됨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 엔씨소프트는 6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룸티스귀걸이", "스냅퍼반지" 이벤트를 진행. '반지'이벤트와, '귀걸이'이벤트는 "드래곤의보물상자" 이벤트와 더불어 매출창출효과가 가장 큰 이벤트인 만큼 진행기간을 감안하면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

기대하지 않았던 '반지', '귀걸이' 이벤트 매출이 2분기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니지1"의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 "리니지2"의 매출도 1분기대비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블레이드앤소울의 국내 및 대만 매출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기반으로 2분기 매출은 2,120억원, 영업이익은 645억원을 기록할 전망. 영업이익은 컨센서스(632억원)를 상회하는 수준. 3분기 실적도 이벤트 반영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벤트의 성격상 추가적인 매출상승에 따른 실적개선도 기대됨.

엔씨소프트의 투자포인트는 "리니지1"과 "길드워2 확장팩"에 기반한 안정적인 실적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신규게임 라인업의 흥행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 "리니지1"의 이벤트 진행에 따른 실적개선이 적어도 3분기까지는 이어질 전망.

현재 프리세일 중인 "길드워2 확장팩"의 판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신규게임라인업의 흥행은 펀더멘털과 주가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전망. 여기에 최근 시장에서 설왕설래되고 있는 출시 딜레이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말까지 지속적인 주가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반도체 Semicon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유진테크	1.1%	최근이슈

News & Issue

유진테크, SK하이닉스와 28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유진테크는 25일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28.81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3.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계약기간은 6월2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LG전자	-1.8%	실적전망

News & Issue

LG전자, 2Q 부진 전망에 5만원대 붕괴

LG전자가 2분기 실적부진 전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 최근 LG전자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목표주가가도 하향조정 중. 2분기 영업이익이 3,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

TV 판매량이 661만대로 전분기 대비 9.5% 감소하여 홈엔터테인먼트(HE)부문의 적자가 지속될 전망.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부문도 프리미엄급 'G4' 출시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량이 예상 대비 부진해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0.6%p 낮아진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디스플레이 Display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업계동향

News & Issue

삼성·LG디스플레이, 패널 재고량 최대치, 하반기 실적 '불안'

대형 LCD가 올해부터 공급과잉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하반기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패널 단가 하락과 TV 세트업체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등이 주된 이유. 상반기 패널 재고량이 지난 3년간에 걸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장기 시장 전망도 부정적.

24일 증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올해 패널 가격 하락으로 예상했던 실적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 LCD TV 패널 가격 하락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상반기 유럽과 남미 신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10% 이상 감소해 재고가 증가하고 있음. LCD TV 수요둔화로 LG디스플레이 올해 영업이익이 1.9조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LCD 패널 공급과잉으로 연말까지 32인치 오픈셀 가격 하락은 지속될 전망이다.

TV 부문 수익성 하락으로 디스플레이 업계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 LG디스플레이 패널 재고량이 늘어남. 패널 출하량 대비 패널 보유량 차이가 올 상반기 22%로 확대. 3년 만에 최대치. 지난 2013년 상반기엔 13%였지만 하반기에 공급부족(숏지) 사태로 패널 값이 '부르는 게 값'이었음.

지난해에도 상반기 10% 수준에서 하반기 5%로 줄어들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지만 올해 20%대를 넘어서면서 재고량이 급격하게 늘었고, 하반기 성장 동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LG디스플레이와 상황은 마찬가지. 이 회사도 TV 세트 재고가 많은데다 오픈셀 보유량도 높은 수치로 올라왔다는 게 업계 설명. 리지드 중소형 OLED176 패널 재고량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음.

업계 관계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가 올해 작년대비 TV 패널을 20% 넘게 팔겠다고 계획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수요 증가는 5% 남짓하면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설명.

그는 이어 "게다가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단가 인하 압력도 거세지면서 올 하반기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실상 중국 현지 생산능력 증설이 계획돼 있는 내년 초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언급.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6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2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2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